

보성군, 농촌 인력 수급 총력... 베트남 교류 본격화

베트남 박리에우성 초청 교류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 "협력 체계 구축 초석 다질 것" 인권 중심 근로 환경·시스템도

보성군이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베트남과 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후인 지 응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을 보성군에 초청해 교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실무협회는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와 보성군과 박리에우성 간 첫 공식 교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성군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우호 방문을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초석

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등 송출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함께 인권 중심의 근로 환경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교류를 통해 송출국 다변화,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 글로벌 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두 지역 간 실무진 교류, 현지 교육 협력,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농업의 지속



지난 11일 보성군청을 방문한 베트남 박리에우성 후인 지 응웬 부위원장 일행과 김철우 보성군수가 농어업 인력 문화 교류 협의를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에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가장 많은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외국인 근로자께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후인 지 응웬 부위원장은 "보성군이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터가 돼 감사하다"며 "한국어 교육, 농업기술 연수,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등 송출 전 준비 과정을 체계화해 더욱 우수한 인력이 보성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시적 인력 교류를 넘어 보성과 박리에우성 간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참다래 꽃가루 발아율 무료 검사 장흥군, 안정 생산 목적 실시

장흥군이 참다래 안정 생산과 확대를 위해 꽃가루 발아율 검사 및 인공수분용 증류수를 무료로 공급한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참다래는 암수 단그루 식물로, 암꽃보다 수꽃의 개화기 늦기 때문에 자연수분이 어려워 암꽃이 핀 후 2일 이내에 수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히는 인공수분 작업을 한다.

이때 수꽃가루의 활력도에 따라 수분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공수분 작업을 하기 전 수꽃가루의 발아율 검사는 필수적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전년도에 채취한 수꽃가루를 냉동 보관하거나 수입산 수꽃가루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입산 수꽃가루는 가격이 높아 선택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꽃가루 발아율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 희석배율을 안내하는 등 농가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860-6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의 참다래 생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꽃가루 발아율을 확인해 적시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과 학영농 기술보급 실험실에서는 이 밖에도 관내 주요 원예작물 대상 생리장해 및 병해충 진단과 돌발 병해충 방제,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현장예거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향사랑기부 담례품 추가 선정 장흥군, 편백 독서대 등 8종

장흥군이 최근 '2025년 제1회 고향사랑기부금 담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공급업체 8개 신규 상품을 담례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편백 독서대(장흥지역자활센터 친환경공방) △이로우미 스페셜세트·데일리 패드센트 △힐링 테라피 이용할인권(장흥군신활력플러스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편백 비누·차약세트 △편백 워터 △편백 나무도마(옹이) △잡곡세트(옹두농협 미국종합처리장) 등이다.

장흥군은 담례품 재(再)기부권을 도입하고, 담례품 선정과 함께 공급업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증량과 담, 기획상품 구성 등 기부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와 감독도 꾸준히 이어간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담례품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담례품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1인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친환경 유인살충기 설치·점검 여수시, 공원 등 15대 신규 설치

여수시가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의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친환경 유인살충기 신규 설치 및 점검에 나섰다.

15일 여수시는 공원과 모기 발생 취약지, 다수인 이용지 등에 친환경 유인살충기(포충기) 15대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포충기는 해충이 선호하는 파장의 UV LED 조명을 이용해 해충을 유인, 전기 충격 방식으로 퇴치하는 친환경 방역장비다. 소음이 거의 없고, 해충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가로등 점등 및 소등 시간에 맞춰 작동되도록 설계해 에너지 효율과 방역 효과를 동시에 고려했다.

기존에 설치된 포충기 444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원과 산책로, 해변, 방역취약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포충기를 설치했다"며 "더욱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 및 해충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 고흥군, 25일까지 교육생 모집

고흥군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 교육생을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귀농인, 귀농 예정자,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5월12일부터 6월13일까지 매주 2~3회, 총 16회 과정으로 62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귀농 전 작물 선택 요령, 고추, 마늘, 유자, 딸기 등 고소득 작물 재배방법, 농업 법률 상식, 귀농 정책, 귀농 사례특강 등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 방법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가까운 읍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10일 순천시 장안장작마당 공유부에서 장·노년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한 끼를 요리하는 '행복요리학당' 참가자들이 채소를 다듬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향동, 혼밥 장·노년 위한 '행복요리학당' 운영

순천시 향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지역 내 혼자 밥 먹는 장·노년가구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한 끼를 위한 '행복요리학당'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요리학당 프로그램은 장안장작마당 공유부에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목

요일 오후 2시에 격주로 진행된다.

혼밥으로 결식이 높고 단백질·채소 등 고른 영양섭취가 부족한 남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안내하고, 직접 조리해 스스로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조리도구 사용법, 식재료 고르는 법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만들기 쉽고 활용도가 높은 밑반찬 조리법, 만성질환 위험도가 높은 장·노년을 위한 저염식 건강요리까지 다양한 조리법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제18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5' 개최

17~19일, 여문 문화의 거리 일대

여수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여문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제18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5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위기, 바다가 보내는 희망 블루카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각종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첫째 날인 17일에는 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최임호 한국수산자원공단 블루카본 전략실장이 '블루카본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활용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 후 시청 앞 로터리에서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교통문화 캠페인'을 펼친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오동도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구간에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오후 8시에는 10분간 시민들이 동참하는 소등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1일 차 없이 출근하기'도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탄소중립 시민행동 걷기행진과 플로깅활동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여문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 대

회'를 개최해 어린이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COP33 유치 홍보 △자원순환 홍보 △건강을 위해 달리는 여수시 보건소 △아동학대 예방 홍보 △다육이 나눔 △캘리그라피·스톤아트·씨글라스 △아로마 오일 제작체험 △프로투스 △친환경비누 제작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나의 기후위기 극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숲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